

美 올해 최우선 정책은 日의 과거사 사과

2차대전 종전 70주년 맞아...아베 총리 방미때 압박할 듯

한·일 관계 개선 통해 동아시아 주도권 놓고 중국 견제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 아베(安倍) 정권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올해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의미를 살려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끌어내고 이를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6일(이하 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를 한·일 관계의 중요한 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동원 가능한 외교적 자산과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베 신조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下野) 담화를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일환이라는 게 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한·일 관계 개선이 내년도 미국의 우선순위(high priority) 정책이라며 미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대일 외교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것은 오는 4~5월 아베 총리의 방미 행사다. 양국 모두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무선에서 비공식 협의가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2월 이후 2년여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그의 이번 방미는 미·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외교이벤트로 평가된다.

안보 면에서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키워

드로 군사동맹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 경제면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의 중심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총선 압승으로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진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방미에서 미·일 동맹의 격상과 경제협력의 질적 제고를 토대로 ‘보통국가로서의 일

본’을 인정받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바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입장을 ‘고리’로 활용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다. 특히 초점은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기념담화에서 아베 총리가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내용을 담도록 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일관계가 근원적으로 악화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운용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터잡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아베 총리가 계속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수정주의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물 건너가고,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수단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틀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고리로 한국과 미·일 동맹의 ‘틈새’를 벌리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역내 안보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워싱턴 조야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미 114대 연방의회 개회식.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의 제114대 연방의회 개회식에서 하원의원들이 손을 들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국제시장’ 미국서도 돌풍 조짐

2주간 관객, ‘명량’보다 많아

내일 뉴욕 등 美 전역 개봉



영화 ‘국제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영화 배급사인 CJ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는 지난 주말 사흘간(1월2일~4일) 영화 ‘국제시장’을 보려고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 있는 CGV LA를 찾은 관객 수가 3667명에 달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개봉 첫 주말보다 관객 수가 27%나 많았으며, 이른 오전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회 매진됐다고 극장 측은 전했다. 지난해 최고 흥행영화로 기록된 ‘명량’의 개봉 2주차 주말 성적보다도 10% 높았다는 것.

CGV LA 웨인 밸렌시아 매니저는 “2주차가 되며 입소문을 타고 단체 관람이 줄을 잇고 있다”면서 “부모와 함께 온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전연

령층이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부터 ‘국제시장’을 상영하기 시작한 패서디나의 램리 극장에서도 평소 볼 수 없었던 한인 관객들이 몰렸다. 이 기간에 한인 관객 500여 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특히 오는 9일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델러스 등 미국 전역에서 개봉할 예정이어서 흥행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국제시장’은 국내 개봉 20일 만에 79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 ‘인터뷰’ 10일간 400억원 벌어

온라인 관람 430만건 돌파

극장수익도 55억원에 달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4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거뒀다고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소니 픽처스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온라인상에서 또는 주문형비디오(VOD) 형식으로 ‘인

터뷰’를 관람한 건수가 430만건 이상으로 3천100만 달러(약 3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 내 독립극장 580곳이 인터뷰를 상영 중인 가운데 극장을 통한 수익은 500만 달러(약 55억원)로 집계됐다.

소니 픽처스는 지난달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북한이 배후로 의심되는 해킹 단체의 테러 위협 속에 영화 개봉을 취소했다가 북한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온·오프라인에서 영화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쿠바, 美정치범 추가 석방... 외교 관계 훈풍

국교 정상화 작업 탄력

쿠바가 정치범으로 규정한 미국인 수감자 일부를 추가로 석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해 12월 17일 선언한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의 후속 조치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쿠바가 이미 미국인 정치범 53명 가운데 일부를 석방했다”며 “미국 정부는 조만간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방된 수감자의 구체적인 숫자와 신원, 석방 일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사키 대변인은 아울러 나머지 정치범의 석방이 이달 말로 예정된 양국 당

국자 간 협상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쿠바 아바나를 방문해 이민 문제와 양국 외교 정상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쿠바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쿠바가 단교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앞서 미국인 수감자 앨런 그로스를 풀어준 데 이어 미국 스파이로 활동했던 최수도 석방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수개월 내에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개설하고 금수 조치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담화 사과 내용 답을까...이달 중 문안 협의

종전70주년 8월15일 발표

한·중은 구체적 반성 요구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일명 아베 담화)의 문안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NHK가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8월15일인 종전 70주년에 즈음해 발표할 담화의 초안 작업을 진행할 지식인회의를 이달 중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인선에 들어갔다. 여성을 포함하는 역사학자와 유력 언론사 간부

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취재에 응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식인회의 인선과 관련, “결론을 미리 내려 둔 채 하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는 “담화는 한국·중국에 대한 사과를 목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한·중에 대한 배려가 강한 내용의 담화가 나오면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되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6일 정부·여당 연례회의에서는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앞으로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해 나갈지를 세계에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생각하면서 새로운 담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일 기자회견에서는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河野)담화(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아베 담화’에 담을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특히 아베 총리는 2013년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일본의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니와스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역사인식 논란을 불식하려면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구체적 반성의 문구가 아베 담화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연합뉴스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언하고 나선 뒤로 중국으로
개의 한 책방이 자리 잡고 있 로서 위상을 높여온 책의 왕국
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의 책 마을로 명성을 얻게 됐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
다. 1962년에 리처드 부스의 민 모두가 사립 주인이다.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헌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